

## 원문의 구두점 때문에 달라지는 성경 해석에 대한 소고

-요한복음 1:3-4와 7:37-38을 중심으로-

장동수\*

### 서론

신약성서의 현존하는 최고(最古)의 사본들에는 띄어쓰기도 되어 있지 않고 구두점도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보드메(Bodmer) 파피루스 사본들이나 비이티(Chester Beatty) 파피루스 사본들, 초기 대문자 사본들에는 아주 간혹 구두점이 사용되었을 뿐이고, 사본에 구두점이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은 6-7세기경이다.<sup>1)</sup> 이렇게 구두점이 없어도, 심지어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어도 보통은 오해의 소지가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간혹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 본고의 목적은 구두점 때문에 일어난 해석상의 전형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요한복음의 두 구절을 중심으로 구두점이 해석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첫째는 요한복음 1:3-4이고, 둘째는 요한복음 7:37-38이다.

---

\* 침례신학대학교 교수, 신약학

1) Bruce M. Metzger, *The Text of the New Testament: Its Transmission, Corruption, and Restoration*, 3rd e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26-27.

## 1. 요한복음 1:3-4

요한복음 1:3-4를 우리가 『개역개정』으로 읽으면, “3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4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이나, 동일한 구절을 『공동개정』으로 읽으면, “3 모든 것은 말씀 통하여 생겨났고 이 말씀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생겨난 모든 것이 4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라고 번역되어 있어서 특별히 밑줄을 그은 글자 부분이 판이하게 다르다. 그러나 『공동개정』의 난외에는 『개역개정』과 흡사한 번역을 실고 있고, 그 후에 한국천주교주교회의에서 번역한 『성경』도 『개역개정』의 방향으로 회귀하였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영어 번역에서도 이 구절에 대한 번역은 크게 두 갈래로 나누어진다. KJV, RSV, NIV 등은 우리의 『개역개정』과 흡사한 번역이다. “3 all things were made through him, and without him was not anything made that was made. 4 In him was life, and the life was the light of men.”(RSV). 그러나 NAS나 NRS는 『공동개정』과 흡사한 번역이다: “3 All things came into being through him, and without him not one thing came into being. What has come into being 4 in him was life, and the life was the light of all people.”(NRS). 즉, 요한복음 1:3-4의 번역이 이렇게 달라지는 이유는 구두점을 어디에 찍어서 어떻게 구절을 구분할 것인가의 문제 때문이다. 즉, 3절의 마지막 어구(ὁ γέγονεν)를 3절을 수식하는 부분으로 볼 것인지, 4절의 시작하는 부분으로 보아 4절의 주어로 볼 것인지의 문제이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평본에도 구두점이 포함되어 NTG<sup>27</sup>(27th, Nestle-Aland)나 GNT<sup>4</sup>(4th, UBS)같은 경우에는 “3 πάντα δι’ αὐτοῦ ἐγένετο, καὶ χωρὶς αὐτοῦ ἐγένετο οὐδὲ ἓν. ὃ γέγονεν 4 ἐν αὐτῷ ζωὴ ἦν, καὶ ἡ ζωὴ ἦν τὸ φῶς τῶν ἀνθρώπων.”라고 되어 있어서, 『공동개정』이나 NRS 같은 번역은 이 저본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NTG도 25판까지는 이 어구(ὃ γέγονεν)의 앞애가 아니라 뒤에 마침표를 찍어 3절을 수식하는 것으로 보고 4절은 ἐν αὐτῷ로 시작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26판부터는 지금처럼 수정하면서 알란트(Aland)는 이에 대한 긴 설명을 한 적이 있다.<sup>2)</sup> 물론 볼트만(Bultmann)은 그보다 이전에 이러한 주장을 하였다.<sup>3)</sup> 하지만 이 구절(πάντα δι’ αὐτοῦ ἐγένετο καὶ χωρὶς αὐτοῦ ἐγένετο οὐδὲ ἓν ὃ γέγονεν ἐν αὐτῷ ζωὴ ἦν καὶ ἡ ζωὴ ἦν τὸ φῶς τῶν ἀνθρώπων)을, 특히 밑줄 친 부분을 절 표시나 구두점이 없었던 상태로 볼 때, 위에 제시한 두 가지 번역을 비롯하여 여러 번역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분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3-4는 우리가 무심결에 읽곤 하지만, 해석상 수많은 논쟁을 일으켰던 구절이다.

이 부분에 대한 사본의 상황은 이렇다. P<sup>66</sup>, P<sup>75\*</sup>, **ⲛ\***, B 등과 같은 초기의 주요 사본들에는 위에서 언급한대로 요한복음 1:1-5까지 구두점이 없고 알렉산드리아 사본(Δ)과 몇몇 대문자 사본들(Δ사본과 063사본)에도 3절과 4절에 구두점이 없다. 그러나 이들 사본의 수정자들과 후기 사본들은 ὃ γέγονεν 앞이나 뒤에 마침표를 찍기 시작하

2) Ernst Haenchen, *John 1*, Hermeneia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4), 113과 각주 24번을 참조하라.

3) Rudolf Bultmann, *The Gospel of John*, G. R. Beasley-Murray, tran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71), 36-40, 특히 39-40쪽의 각주 2-4번을 참조하라.

였다. P<sup>75c</sup>와 대문자 사본 C, D, L, W 등을 위시하여 많은 번역본들과 오리겐(Origen)을 위시한 교부들은 ὁ γέγονεν 앞에 마침표를 두었으나, 대문자 사본  $\aleph^c$ , K, X, II,  $\Psi$  등과 대다수의 소문자 사본들과 번역본, 크리소스툼(Chrysostom)을 위시한, 교부들을 포함하는 더 많은 증거 사본들이 ὁ γέγονεν 뒤에 마침표를 두고 있다. 메츠거(Metzger)나 오만손(Omanson)의 책은 니케아 이전까지는 정통이나 이단에 속한 저자들이 모두 ὁ γέγονεν 앞에 마침표를 찍고 이 어구를 4절의 주어로 보아서 읽었으나 성령을 피조물로 보았던 아리우스파와 마케도니아의 이단들의 주장을 막아내기 위하여 4세기부터 ὁ γέγονεν 뒤에 마침표를 찍고 4절은 ἐν αὐτῷ로 시작하는 것으로 읽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sup>4)</sup> 위에 언급한 사본들의 현상에 대한 정확한 언급은 아니다. 더욱이 메츠거는 알란트를 포함한 GNT<sup>4</sup>의 편집위원회의 의견이 아닌 자신의 사견을 제시하면서 “다른 사항을 고려할 때 ὁ γέγονεν을 앞 문장에 연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주장한다.<sup>5)</sup> 메츠거는 계속하여 “ὁ γέγονεν을 뒤의 표현과 연결시켜 의미를 알아내려고 했던 주석가들의 용감한 시도들에도 불구하고, 그 구절은 너무나 어색하고 불투명하다”고 일축했다.<sup>6)</sup>

여기 언급된 용감한 시도를 했던 주석가들의 대표가 위에서 말한

4) 브루스 M. 메츠거, 『신약 그리스어 본문 주석』, 장동수 역, 2판, (서울: 대한성서공회성경원문연구소, 2005), 162-163과 Roger L. Omanson, *A Textual Guide to the Greek New Testament* (Stuttgart: German Bible Society, 2006), 163을 참조하라. 즉, 이러한 “이단들이 이 구절을 근거로 성령을 창조물의 하나로 간주하기 시작하자 정통과 저자들이 ὁ γέγονεν을 앞의 문장과 함께 해석하여 이 구절이 이단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차단했다”는 것이다. 이 내용에 대하여는 B. F. Westcott and F. J. A. Hort, *Introduction to the New Testament in the Original Greek with Notes on Selected Readings* (Peabody: Hendrickson, 1988), 73-74(appendix)도 참고하라.

5) 메츠거, 「신약 그리스어 본문 주석」, 162-163.

6) Ibid., 특히 각주 2번을 참조하라.

볼트만과 그의 요한복음 주석을 영어로 번역하고 WBC의 요한복음 주석을 저술한 비슬리-머레이(Beasley-Murray)같은<sup>7)</sup> 주석가나 요한복음의 가톨릭 주석가인 브라운(Brown) 등이다.<sup>8)</sup> 또한 바우터(Vawter)부터 에반스(Evans)까지의 학자들도 이들을 앞서거나 뒤따르고 있다.<sup>9)</sup> 그들은 NTG<sup>27)</sup>나 GNT<sup>4)</sup>의 구두점처럼 이 구절을 나누어 번역하고 해석한다. 어떤 주석가는 ὁ γέγονεν을 3절에 둘 경우 요한복음 서두의 그리스어 운율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동어 반복(tautological)이 될 수 있어서, 저자의 의도가 아니었을 것이라고까지 주장한다.<sup>10)</sup>

볼트만은 요한복음 1:3에서 창조의 “때”를 말하고 있다면 창세기 1:11, 22, 28 등과 연관하여 세상의 창조와 창조된 세상의 보존 사이에 구별이 필요한데, 바로 3절 후반부와 4절 전반부(ὁ γέγονεν 4 ἐν αὐτῷ ζῶη ἦν,)가 존재의 시작과 보존이 λόγος(즉, ἐν αὐτῷ)와 연관되어 있다고 말한다는 것이다.<sup>11)</sup> 비슬리-머레이는 볼트만의 견해를

- 
- 7) George R. Beasley-Murray, *John*, WBC (Waco: Word Books, 1987), 1-2, 각주 11번을 보라.
  - 8) Raymond E. Brown, *The Gospel according to John(i-xii)*, AB (New York: Doubleday, 1970), 3, 6-7을 보라.
  - 9) B. Vawter, “What Came to Be in Him Was Life (Jn 1, 3b-4a),” *Catholic Biblical Quarterly* 25 (1963), 401-406; J. Mehlmann, “A Note on John i 3,” *Expository Times* 67 (1955-1956), 340-341; J. A. T. Robinson, “The Relation of the Prologue to the Gospel of St. John,” *New Testament Studies* 9 (1962-1963), 120-129; E. R. Smothers, “Two Readings in Papyrus Bodmer II,” *Harvard Theological Review* 51 (1958), 109-111; Craig A. Evans, *Word and Glory: On the Exegetical and Theological Background of John’s Prologue* (Sheffield: JSOT Press, 1993), 104 등 참조.
  - 10) R. V. G. Tasker, *John*, Tyndale New Testament Commentaries (Grand Rapids: Eerdmans, 1992), 45; Bultmann, *The Gospel of John*, 39, 각주 2번 등 참조.
  - 11) 그는 ὁ γέγονεν을 4절 초반과 합해 놓고 이 구절(ὁ γέγονεν 4 ἐν αὐτῷ ζῶη ἦν,)을 “What has come to be-in him (the Logos) was the life (for

따르면서 사본적인 증거가 불확실한 이문인 4절의 현재형(ἔστιν)과 ὁ γέγονεν의 현재 완료형(γέγονεν)이 잘 맞는다는 논거로 이 어구가 3절을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4절의 주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12)</sup> 그러나 이를 지지하는 사본적인 증거가 약하고 4절 후반부에 바로 이어서 미완료형인 ἦν이 나오는 것 등으로 보아 원문에는 현재형인 ἔστιν이 아니었을 것임이 분명하다.<sup>13)</sup>

브라운은 볼트만의 견해를 따라 3절 후반부와 4절 전반부(ὁ γέγονεν 4 ἐν αὐτῷ ζωὴ ἦν,)를 “That which had come to be in him was life”로 번역하면서, 바렛(Barrett)과 헨헨(Haenchen)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현대 주석가들이 이 구두점을 따른다고 말한다.<sup>14)</sup> 그는 헨헨이 이렇게 ὁ γέγονεν 앞에 구두점을 찍는 것은 영지주의 진영에서 나왔다고 주장하는 것이 맞는 지적일지라도, 이렇게 나누는 것이 요한복음 서두의 시적 운율, 즉 점층적 혹은 계단식 운율에 적합하다고 주장한다.<sup>15)</sup>

하지만 헨헨과 모리스(Morris) 등은 자신들의 주석에서 위에서 진술한 학자들의 주장을 명쾌하게 반박한다. 다드(Dodd)는 이러한 현상을 언급만 하고 지나가지만,<sup>16)</sup> 호스킨스(Hoskyns)도 이들의 선두주자이다.<sup>17)</sup> 헨헨은 우선 NTG<sup>26</sup>(26th, Nestle-Aland)에서 구두점을 바

it)” 혹은 “What has come to be-in it he (the Logos) was the life”라고 해석하였다. Bultmann, *The Gospel of John*, 38-39.

12) Beasley-Murray, *John*, 2, 각주 b 참조.

13) 메츠거, 『신약 그리스어 본문 주석』, 163을 참조하라.

14) 그는 이 어구의 번역이 “That-which-had-come-to-be was life in him.”와 “That-which-had-come-to-be-in-him was life.” 두 가지가 가능하다고 언급하면서 전자를 택하였다. Brown, *The Gospel according to John*(i-xii), 6-7을 보라.

15) *Ibid.*, 6.

16) C. H. Dodd, *The Interpretation of the Fourth Gospel*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0), 203.

꾼 알란트의 판단은 잘못되었으나 사본적인 증거를 나열하고 나서 알란트가 3절 끝의 어구 ὁ γέγονεν을 4절 초반부의 주어로 본 것은 영지주의자들과 동방교회가 지지했던 것이라고 한 것은 옳았다고 말한다.<sup>18)</sup> 그는 이어서 볼트만의 주장은 영지주의적인 해석일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3-4에 그가 주장하는 “지속적인 존재”(continuing existence) 사상이 없고, ὁ γέγονεν을 4절 초반의 주어로 붙여서 해석할 경우 시적인 스타일이 아닐뿐더러 그럴 경우 4절에서는 λόγος에 대해서 아무것도 새롭게 말하는 것이 없게 된다고 꼬집는다.<sup>19)</sup> 모리스는 볼트만의 번역 및 논조(창조와 보존을 나눈 방식)와 비슷한 웨스트코트(Westcott)의 주장에 반론을 펴면서 헨헨과 흡사한 견해를 더 길게 논의하였다.<sup>20)</sup>

또한 요한복음 서두, 특히 요한복음 1:1-5에 나타나는 점층법적, 계단식 운율 때문에 ὁ γέγονεν이 3절을 수식하는 어구가 아니라 4절 초반부의 주어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그것도 그리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요한복음 1:1-5를 배열해보면 흥미롭게도 다음과 같은 모습을 보인다.

- 1절 Ἐν ἀρχῇ ἦν ὁ λόγος, (5 단어)  
 καὶ ὁ λόγος ἦν πρὸς τὸν θεόν, (7 단어)  
 2절 καὶ θεὸς ἦν ὁ λόγος. (5 단어)  
 οὗτος ἦν ἐν ἀρχῇ πρὸς τὸν θεόν. (7 단어)

17) Edwyn Clement Hoskyns, *The Fourth Gospel* (London: Faber and Faber Ltd., 1947), 142-143.

18) Haenchen, *John 1*, 113.

19) *Ibid.*, 114.

20) Leon Morris,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NICNT rev. ed. (Grand Rapids: Eerdmans, 1995), 72-75를 참조하라.

- 3절 πάντα δι' αὐτοῦ ἐγένετο (4 단어)  
 καὶ χωρὶς αὐτοῦ ἐγένετο οὐδὲ ἓν ὃ γέγονεν (8 단어)
- 4절 ἐν αὐτῷ ζῶη ἦν (4 단어)  
 καὶ ἡ ζῶη ἦν τὸ φῶς τῶν ἀνθρώπων (8 단어)
- 5절 καὶ τὸ φῶς ἐν τῇ σκοτίᾳ φαίνει, (7 단어)  
 καὶ ἡ σκοτία αὐτὸ οὐ κατέλαβεν. (6 단어)

위의 배열에서 보듯이 요한복음 1-4절은 1절과 2절이 각각 다섯 단어와 일곱 단어로 된 두 연으로 되어 있고, 3절과 4절이 각각 네 단어와 여덟 단어로 된 두 연으로 구성된 정교한 시이다. 그리고 1절이 전치사 ἐν으로 시작한 것 같이 4절도 동일한 전치사로 시작하는 문장이 되는데, 이러한 예는 요한문헌에 아주 많다.<sup>21)</sup> 그리고 늘 앞 연의 후반부가 다음 연의 전반부가 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만약 ὃ γέγονεν을 4절의 시작 부분으로 분리한다면, 3절은 네 단어와 여섯 단어의 연으로, 4절은 여섯 단어와 여덟 단어의 연으로 구성되어 위에서 보는 정교함이 깨어질 뿐더러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한다. 그것은 바로 4절의 첫 연은 새로운 사상을 언급하지 못하게 되는 점이다.

이상의 요한복음 1:3-4의 구두점에 관한 사본적 상황, 양대 진영의 주석가들의 주장, 요한복음 1:1-5에 대한 구조분석 등의 논의를 종합한다면, NTG<sup>27)</sup>나 GNT<sup>4)</sup>의 요한복음 1:3-4의 구두점은 올바른 판단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구두점을 따라 이 부분을 번역한 『공동개정』의 번역은 설득력이 없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개역개정』이나 『성경』의 번역이 합당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우리는 여기서 구두점 하나 때문에 번역이나 해석이 크게 달라질 수

21) 요한복음 13:35; 15:8; 16:26; 요한일서 2:3, 4, 5; 3:10, 16, 19, 24; 4:2 등에서 그러하다.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 2. 요한복음 7:37-38

요한복음 7:37-39(37 Ἐν δὲ τῇ ἑσχάτῃ ἡμέρᾳ τῇ μεγάλῃ τῆς ἑορτῆς εἰστήκει ὁ Ἰησοῦς καὶ ἔκραξεν λέγων· ἐάν τις διψᾷ ἐρχέσθω πρὸς με καὶ πινέτω. 38 ὁ πιστεύων εἰς ἐμέ, καθὼς εἶπεν ἡ γραφή, ποταμοὶ ἐκ τῆς κοιλίας αὐτοῦ ρέουσιν ὕδατος ζῶντος. 39 τοῦτο δὲ εἶπεν περὶ τοῦ πνεύματος ὃ ἔμελλον λαμβάνειν οἱ πιστεύσαντες εἰς αὐτόν· οὐπω γὰρ ἦν πνεῦμα, ὅτι Ἰησοῦς οὐδέπω ἐδοξάσθη)는<sup>22)</sup> 초막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목소리 높여 초청하신 유명구절이며 성령에 대한 주요구절이다. 『개역개정』은 “37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 나를 믿는 자는 성령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9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라고 번역되어 있고 『공동개정』이나 『표준개정』도 이와 대동소이하다. 그러나 『표준개정』의 난외주에는 위의 밑줄 친 부분이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오너라. 나를 믿는 사람은 마셔라. 성경에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라고 번역되어 있어서, 우리가 익숙하게 읽는 번역과는 차이를 보인다. 영어 번역에도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번역이 있다.<sup>23)</sup> 간단하게 말하자

22) 편의상 NTG<sup>27</sup>(27th, Nestle-Aland)나 GNT<sup>4</sup>(4th, UBS)의 본문을 구두점이 있는 채로 가져왔으나, 원래는 구두점이 없었음을 감안해야 한다.

23) 영어 번역 중에서는 NRS(37 On the last day of the festival, the great day, while Jesus was standing there, he cried out, “Let anyone who is thirsty come to me, 38 and let the one who believes in me drink. As

면, 이 구절에서 37절 마지막에 마침표를 찍으면 생수(ὕδατος ζῶντος)의 원천이 신자가 되고, 38절 초반부, “ὁ πιστεύων εἰς ἐμέ” 다음에 찍으면 예수가 된다. 즉, 39절과 연결하면 이 생수 즉, 성령의 원천이 어디로부터냐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 구절에서도 이렇게 번역이나 해석상의 차이가 일어나는 것은 일차적으로 구두점의 문제 때문이다. 즉, 38절의 처음 부분인 “ὁ πιστεύων εἰς ἐμέ”(나를 믿는 자)라는 어구 앞에 마침표를 찍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따라 번역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물론 여기에서 이것과 연관하여 이어 나오는 어구의 “성경”(ἡ γραφή)은 구체적으로 어디를 지목하는 것인가의 문제와 동시에 “그 배에서”(ἐκ τῆς κοιλίας αὐτοῦ)란 누구의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의 문제도 함께 연결되어 있다.

요한복음 7:37-38 사이 구두점 논의가 많았는데,<sup>24)</sup> 구두점과 연

---

the scripture has said, ‘Out of the believer’s heart shall flow rivers of living water.’”와 NJB(37 On the last day, the great day of the festival, Jesus stood and cried out; “Let anyone who is thirsty come to me! 38 Let anyone who believes in me come and drink!” As scripture says, “From his heart shall flow streams of living water.”), 그리고 가 “ὁ πιστεύων εἰς ἐμέ”(나를 믿는 자)라는 어구 뒤에 마침표를 두는 것으로 보고 37절에 붙여서 번역하였다. 하지만 NRS는 NJB에서 “From his heart”라고 번역한 원문의 ἐκ τῆς κοιλίας αὐτοῦ라는 어구를 너무 확정적으로 “Out of the believer’s heart”라고 번역하여 생수의 원천을 신자로 본다.

- 24) K. H. Kuhn, “St. John vii, 37-8,” *New Testament Studies* 4 (1957-1958), 63-65; J. Blenkinsopp, “John vii 37-9; Another Note on a Notorious Crux,” *New Testament Studies* 6 (1959-1960), 95-98; G. D. Kilpatrick, “The Punctuation of John vii 37-38,” *Journal of Theological Studies* 11 (1960), 340-342; S. H. Hooke, “‘The Spirit was not yet’,” *New Testament Studies* 9 (1962-1963), 372-380; Brown, *The Gospel according to John(i-xii)*, 319-323; Dodd, *The Interpretation of the Fourth Gospel*, 347-351; Leon Morris,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371-379 등을 참조하라.

관하여 이 구절에 대한 번역의 가능성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된다.<sup>25)</sup>

가) 37...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38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의 안에서부터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  
 (ἐάν τις διψᾷ ἐρχέσθω πρὸς με καὶ πινέτω.  
 38 ὁ πιστεύων εἰς ἐμέ, καθὼς εἶπεν ἡ γραφή,  
 ποταμοὶ ἐκ τῆς κοιλίας αὐτοῦ ῥεύσουσιν ὕδατος ζῶντος.)

나) 37-38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게 하라.  
 그리고 나를 믿는 자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의 안에서부터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  
 (ἐάν τις διψᾷ ἐρχέσθω πρὸς με  
 καὶ πινέτω 38 ὁ πιστεύων εἰς ἐμέ,  
 καθὼς εἶπεν ἡ γραφή,  
 ποταμοὶ ἐκ τῆς κοιλίας αὐτοῦ ῥεύσουσιν ὕδατος ζῶντος.)

다) 37 ...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즉, 나를 믿는 자는)  
 38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의 안에서부터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  
 [ἐάν τις διψᾷ ἐρχέσθω πρὸς με καὶ πινέτω. (38 ὁ πιστεύων εἰς ἐμέ,)]

25) 이 세 가지 대안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Brown, *The Gospel according to John(i-xii)*, 320-321을 보라

καθὼς εἶπεν ἡ γραφή, ποταμοὶ ἐκ τῆς κοιλίας αὐτοῦ  
ρέουσουσιν ὕδατος [ζῶντος.]

번역 가)는 37절 끝에 마침표를 주고, “ὁ πιστεύων εἰς ἐμέ”를 38절의 주어가 되게 한 번역이며 한글이나 영어 성서에 가장 많이 채택된 번역이다. 주석가들 중에서는 드물게 헨헨과 모리스가 이 번역을 지지하는데,<sup>26)</sup> 헨헨은 ὁ πιστεύων εἰς ἐμέ 구문을 “독립 주격”(nominative absolute)으로 보아 이 어구가 38절 전체의 주어 역할을 한다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신자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른다고 해석한다.<sup>27)</sup> 그러나 이 번역대로라면 신자가 생수의 원천이 된다는 의미인데, 요한복음이나 신약성서 어디에도 이러한 사상은 없다는 것이 문제점이었고, 바로 이어지는 39절에서도 분명히 그리스도가 성령의 원천, 즉 생수의 원천임을 말하고 있는 점과도 맞지 않는다.

그래서 모리스도 이러한 이유를 들어서 다음에 나오는 번역대안 나)를 절대적으로 배제시킬 수 없는 대안이라고 신중하게 다루고는 있지만, 교부들의 증거는 분산되나 파피루스 사본 P<sup>66</sup>의 지지와 현대 비평본들과 RSV, REB, GNB 같은 영어 번역본들, 피(Gordon Fee)같은 사본학자들이 지지한다고 하면서 번역 대안 가)을 더 선호한다.<sup>28)</sup>

번역 나)는 38절의 첫 부분인 “ὁ πιστεύων εἰς ἐμέ” 뒤에 마침표를 두어 37절을 두 개의 평행구나 대칭 구조로 구성하여 번역한 것인데, 이 번역은 예수가 생수의 원천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즉, 소위 기독교론적인 해석의 길을 열어주는 번역 대안이다. 이

26) Ernst. Haenchen, *John 2*, Hermeneia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4), 17; Morris,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371-379 등을 보라.

27) Haenchen, *John 2*, 17.

28) Morris,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374-375, 특히 각주 82번을 보라.

제안은 현재까지 소수의 번역 성경에 반영되었으나,<sup>29)</sup> 호스킨스,<sup>30)</sup> 쿤(Kuhn),<sup>31)</sup> 다드,<sup>32)</sup> 브라운,<sup>33)</sup> 비슬리-머레이<sup>34)</sup> 등과 같은 다양한 학자들의 제안이다. 브라운은 이 경우에 37절이 탁월한 시적 평행구를 형성하여 요한의 교차 대구적 구조와도 맞고, 물이 예수로부터 흘러나온다는 사상은 요한복음 19:34의 지지를 받으며, 또 다른 요한 문서인 계시록 22:1에서 하나님과 어린양(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하였고, 39절에서 물은 성령이라는 해설이 나오므로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시는 분이 예수이시기 때문에(요 19:30; 20:22), 이 번역 대안, 즉 기독교적 해석이 옳바르다고 역설한다.<sup>35)</sup> 비교적 최근에 이 구절에 대한 번역과 해석에 대하여 좀 더 함축적인 접근을 시도한 칼슨(Carson)도 결국은 번역 나)를 지지하는데, 그는 38절의 *καθὼς* 이하 구절(*καθὼς εἶπεν ἡ γραφή, ποταμοὶ ἐκ τῆς κοιλίας αὐτοῦ ρέουσιν ὕδατος ζῶντος*)을 예수의 언사가 아니라 39절과 함께 요한복음 기자가 예수에 대하여 언급한 것으로 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sup>36)</sup>

번역 다)는 킬패트릭(Kilpatrick)의 제안으로 38절의 초반부인 “ὁ

29) 한글 성경에는 고작 『표준개정』의 난외주에 이 번역 대안이 나오고 있지만, 영어권에서는 좀 더 진전이 되어 있다. 즉, 위에서 언급한 NJB와 비록 앞부분만이긴 하지만 NRS, TOB의 난외주는 예수가 생수의 원천으로 명기하고 있다. TOB에 대한 설명은, Omanson, *A Textual Guide to the Greek New Testament*, 181을 보라.

30) Hoskyns, *The Fourth Gospel*, 320-324.

31) 그는 이 구두점을 지지하는 Coptic(Sahidic) 사본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Kuhn, “St. John vii, 37-8,” 63-65을 보라.

32) Dodd, *The Interpretation of the Fourth Gospel*, 347-351.

33) Brown, *The Gospel according to John(i-xii)*, 319-323.

34) Beasley-Murray, *John*, 114-117을 보라.

35) Brown, *The Gospel according to John(i-xii)*, 320.

36) D. A. Carson,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The Pillar New Testament Commentary* (Grand Rapids: Eerdmans, 1991), 323-328을 참조하라.

πιστεύων εἰς ἐμέ” 뒤에 마침표를 두되, 이 어구를 37절에 첨가하여 괄호 속에 두었다.<sup>37)</sup> 이때 “ὁ πιστεύων εἰς ἐμέ”(즉, 나를 믿는 자는)라는 어구는 앞문장이나 뒷문장의 주어가 될 수 있어서 가)와 나)를 조합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어차피 이 어구를 37절에 붙이든지 38절에 붙이든지 해석자가 선택해야 하므로 대안 다)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번역은 아니다. 그러므로 위에 제시한 대안 가)와 나) 중에서 다음에 논의되는 두 가지 사안과 관련하여 설득력이 있는 쪽을 택해야 한다.

그렇다면 “성경”(ἡ γραφή)은 구체적으로 어디를 지목하는 것일까? 약간의 반대의견이 있긴 하지만, 초막절의 관습과 관련하여 구약 성경으로부터 대표적으로 스가랴 14:8, 에스겔 47:1-12, 이사야 12:3 등이 후보로 언급된다. 이 구절들은 초막절에 물을 길어와 붓는 의식 및 성령과 관련하여 랍비들의 인용이 잦았던 구절들인데,<sup>38)</sup> 이사야 12:3은 “구원의 샘”(πηγή σωτηρίου, 비교, 슥 13:1; 요 4:14)이 언급되고, 에스겔 47:1-12에는 물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다는 언급이 있고, 스가랴 14:8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생수”(ὕδωρ ζῶν)가 솟아날 것이라는 언급이 있는 것과 관련성이 있다.<sup>39)</sup>

마지막으로 “그 배에서”(ἐκ τῆς κοιλίας αὐτοῦ)란 누구의 무엇을

37) Kilpatrick, “The Punctuation of John vii 37-38,” 341을 보라. Morris도 Kilpatrick와의 개인적인 대화를 통하여 그의 견해를 이해하고 기술하였다. Morris,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375의 각주 83번을 보라. Blenkinsopp도 이와 흡사한 주장을 폈다. Blenkinsopp, “John vii 37-9; Another Note on a Notorious Crux,” 96을 보라.

38) Dodd, *The Interpretation of the Fourth Gospel*, 349; Brown, *John*, 323-324; Morris,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372-373 등을 참조하라.

39) 어떤 학자들은 38절의 “배”(κοιλίας)를 스가랴서 14:8과 관련하여 예루살렘으로 보기도 하였다. Morris,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376-377에 걸친 긴 각주 89번을 보라.

의미하는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서, “그의”(αὐτοῦ)라는 대명사를 신자로 본다면 별반 논의될 것이 없다. 물론 구약에서 배(κοιλία)는 가장 깊은 내면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었기 때문에(잠 20:27; 시 40:8), 또한 교부들이나 주석가들, 번역들에서는 인간의 마음(heart)이나 가슴으로 보고 번역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 대명사(αὐτοῦ)를 예수로 본다면 “배에서”(ἐκ τῆς κοιλίας)라는 어구는 우선 동일한 복음서의 19장 34절,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ἀλλ’ εἰς τῶν στρατιωτῶν λόγῃ αὐτοῦ τὴν πλευρὰν ἔνυξεν, καὶ ἔξηλθεν εὐθὺς αἷμα καὶ ὕδωρ)의 상징적인 해석과 연관 지을 수가 있고, 또한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 나오는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πηγὴ ὕδατος ἀλλομένου εἰς ζωὴν αἰώνιον; 요 4:14)에서도 상징적, 암시적 언급을 찾을 수가 있다. 그리고 성령에 대한 명시적인 가르침인 요한복음 14:26과 16:7, 20:22(“성령을 받으라”; λάβετε πνεῦμα ἅγιον) 등과 연결된다. 신약의 다른 책에서는 고린도전서 10:4의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καὶ πάντες τὸ αὐτὸ πνευματικὸν ἔπιον πόμα· ἔπινον γὰρ ἐκ πνευματικῆς ἀκολουθούσης πέτρας, ἡ πέτρα δὲ ἦν ὁ Χριστός)라는 어구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복음 기자는 그리스도의 몸을 진정한 성전이라고 말하였고(요 2:21), 예수는 생수 혹은 샘물이라고 암시하였으므로(요 4:14; 19:34), 그는 구약의 말씀들(사 12:3; 숙 14:8; 겔 47:1-12)을 “성경”(ἡ γραφή)이라고 엄두에 두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부터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요한복음 7:37-39를 기술하였을 가능성이 높다.<sup>40)</sup>

40) Dodd, *The Interpretation of the Fourth Gospel*, 349.

38절까지 화자가 예수님이라 하여도 동일한 추측이 가능하여 예수께서 구약의 이 말씀들을 암시하면서 38절을 말씀하셨을 수도 있다. 그래서 38절의 처음 어구, “ὁ πιστεύων εἰς ἐμέ” 다음에 마침표를 찍고 이 어구는 37절과 함께 번역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번역 대안 나)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다면, 우리는 요한복음 7:37-38에서 『표준개정』의 난외주의 번역을 높이 평가하여 따라야 하고 『개역개정』의 번역은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NTG<sup>27</sup>과 GNT<sup>4</sup>의 구두점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 결론

본고를 통하여 간략하게 네 가지 결론과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로,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우리는 구두점이 본문에 속한 것은 아니지만, 어떤 경우에는 치명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흔히 본문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 어휘나 구절 등에 관련된 이문 연구에만 집중하기 쉬운데, 구두점도 본문의 의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 두 가지 경우가 보여준 셈이다.

둘째로, 요한복음 1:3-4의 경우는, 마침표가 ὁ γέγονεν 다음에 붙여져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러므로 전통적인 번역인 『개역개정』의 번역이 바람직하며, 『공동개정』의 번역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성경』의 번역자들이 『공동개정』의 입장을 떠나서 『개역개정』의 번역의 입장과 같은 방향으로 회귀한 것은 잘 한 일로 보인다.

셋째로, 요한복음 7:37-38의 경우는, 38절의 시작부분의 어구 ὁ πιστεύων εἰς ἐμέ 뒤에 마침표를 찍어서 이 어구가 37절에 포함되어야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러므로 『개역개정』의 번역은

이 구절에 대한 번역에 관하여 다시 한 번 재고해 볼 여지가 있으며, 『표준개정』의 경우 이 구절에 대하여 난외주에 달아 놓은 번역 대안을 본문으로 승격시킬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3-4와 7:37-38에 대한 NTG<sup>27</sup>나 GNT<sup>4</sup>의 구두점은 재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차후에 이들의 후속판이 나올 경우 이 부분을 재조정할 것을 제안한다.

<주요어>

사본, 구두점, 요한복음 1:3-4, 요한복음 7:37-38, 번역과 해석, 본문 비평

<Key Words>

Greek Manuscripts, Punctuation Marks, John 1:3-4; John 7:37-38, Bible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New Testament Textual Criticism

### 참고문헌

- Aland, Barbara, et al., eds., *The Greek New Testament*, 4th rev. ed.,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United Bible Societies, 1993.
- Beasley-Murray, George R., *John*, WBC, Waco: Word Books, 1987.
- Blenkinsopp, J., "John vii 37-39; Another Note on a Notorious Crux," *New Testament Studies* 6 (1959-1960), 95-98.
- Brown, Raymond E.,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i-xii)*, AB, New York: Doubleday, 1970.
- Bruce M. Metzger, 『신약 그리스어 본문 주석』, 장동수 역, 2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성경원문연구소, 2005.
- Bultmann, Rudolf, *The Gospel of John*, G. R. Beasley-Murray, tran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71.
- Carson, D. A.,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The Pillar New Testament Commentary, Grand Rapids: Eerdmans, 1991.
- Dodd, C. H., *The Interpretation of the Fourth Gospel*,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0.
- Evans, Craig A., *Word and Glory: On the Exegetical and Theological Background of John's Prologue*, Sheffield: JSOT Press, 1993.
- Haenchen, Ernst, *John 1*, Hermeneia,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4.
- Haenchen, *John 2*, Hermeneia,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4.
- Hooke, S. H., "'The Spirit was not yet,'" *New Testament Studies* 9 (1962-1963), 372-380.
- Hoskyns, Edwyn Clement, *The Fourth Gospel*, London: Faber and Faber Ltd., 1947.
- Kilpatrick, G. D., "The Punctuation of John vii 37-38," *Journal of Theological Studies* 11 (1960), 340-342.
- Kuhn, K. H., "St. John vii, 37-38," *New Testament Studies* 4 (1957-1958), 63-65.

- Mehlmann, J., "A Note on John i 3," *Expository Times* 67 (1955-1956), 340-341.
- Metzger, Bruce M., *The Text of the New Testament: Its Transmission, Corruption, and Restoration*, 3rd e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 Morris, Leon,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NICNT, rev. ed., Grand Rapids: Eerdmans, 1995.
- Omanson, Roger L., *A Textual Guide to the Greek New Testament*, Stuttgart: German Bible Society, 2006.
- Robinson, J. A. T., "The Relation of the Prologue to the Gospel of St. John," *New Testament Studies* 9 (1962-1963), 120-129.
- Smothers, E. R., "Two Readings in Papyrus Bodmer II," *Harvard Theological Review* 51 (1958), 109-111.
- Tasker, R. V. G., *John*, Tyndale New Testament Commentaries, Grand Rapids: Eerdmans, 1992.
- Vawter, B., "What Came to Be in Him Was Life(Jn 1: 3b-4a)," *Catholic Biblical Quarterly* 25 (1963), 401-406.
- Westcott, B. F. and Hort F. J. A., *Introduction to the New Testament in the Original Greek with Notes on Selected Readings*, Peabody: Hendrickson, 1988.



<Abstract>

## An Investigation on the Punctuation of the Greek New Testament: Two Examples from the Gospel of John

Prof. Dong-Soo Chang

(Korea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how punctuation marks in the Greek New Testament affect the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of the text. John 1:3-4 and 7:37-38 were discussed intensively.

NTG<sup>27</sup> (27th, Nestle-Aland) and GNT<sup>4</sup> (4th, UBS) as well as many commentators put a major break before ο] γέγονεν of John 1:3 and make this phrase the subject of the first part of the following verse. This investigation asserted that the punctuation of these two critical editions on John 1:3-4 is not correct. Furthermore, this paper also asserted that the punctuating of these two critical editions on John 7:37-38 is not a correct judgement.

Accordingly, some Korean translations on these verses were recommended for their correctness or pointed out for

further adjustment. The importance of punctuation in the Greek New Testament was high-lightened through these two examples from the Gospel of John.